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5:9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절 후 제23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비 전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32.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다함께
----------------	---------------------------	-----

♣ 공동기도	다함께
--------------	-----

자비하신 하나님, 곱게 물들어가는 단풍을 보며 그 고운 색에 감탄하다가도, 그것이 한살이를 마치기 위한 나뭇잎의 준비과정임을 떠올리며 숙연해집니다. 눈부신 가을볕에 나왔으면 우리가 한낱 진흙덩이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 이 가을에는 우리가 욕심을 여윈 자의 겸허한 음성으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쉽 없이 반복되는 일상에 우리는 지쳤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지금 이곳’에서의 삶이 곧 은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이십니까, 주님? 그렇다면 우리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발견하는 기쁨 속에서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

♣ 위로의 말씀	호10:12	인도자
----------------	--------------	-----

♣ 교 독 문	14. 시편46편	다함께
---------------	-----------------	-----

♣ 영 광 송	3. 이 천지간 만물들아	다함께
---------------	---------------------	-----

대표기도	I. 최예원 선생 II. 구성실 장로
------------	----------------------

응 답 송	성가대
-------------	-----

찬 송	503. 고요한 바다로	다함께
-----------	--------------------	-----

성경봉독	I. 시147:1-11	인도자
------------	--------------------	-----

II. 렘33:10-13	안경숙 집사
---------------------	--------

찬 양	성가대
-----------	-----

말 씬	I. 이 세계 절반의 이름	김재흥 목사
-----------	----------------------	--------

II. 은총의 순간들	김기석 목사
-------------------	--------

거듭기도	다같이
------------	-----

헌신의 찬송 406. 내 맘이 낙심되며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356. 성자의 귀한 몸(4)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치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참 자유인답게 살아가십시오. 지금 살아가는 자리가 인생의 꽃자리임을 잊지 마십시오. 바로 옆에 있는 이들의 삶에 하늘의 빛과 사랑을 공급하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다함께 : 아멘. 사랑과 봉사의 길로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에 응하며 살겠습니다. 할 수 없는 핑계를 찾기보다는, 해야 할 까닭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따르면서 거두는 값진 생의 열매들을 주님의 곳간에 쌓아놓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레위기 강해(3)	설교 : 장영숙 전도사
인도 : 김재흥 목사	기도 : 안길상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김재흥 목사	황건호 선생 윤석철 장로	인도자 안경숙 집사

10월	영접위원	한완식	김용진	조문규	이순정	최영혜	박혜경
	헌금위원	한상익	김중수	하현철	유영남	이기분	최숙화

진짜가 되는 길

내가 좋아하는 성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 중에는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라는 구절이 있다. 꼭 이 기도문이 아니더라도 이 말은 어렸을 때부터 주위 어른들에게서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고, 이제는 내가 어른이 되어 걸핏하면 입에 올리는 말이기도 하다.

‘사랑을 받기보다는 주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이왕 주는 사랑이라면 타산적이고 쪼쪼하지 않게 제대로 된 사랑을 주라.’

나 자신도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쭙잖지만, 그래도 가끔은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말이다. 사실 내가 업으로 삼고 있는 문학의 궁극적인 주제도 결국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의 문제로 귀착되니, 내 삶의 주제는 단연 ‘사랑하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요즘 들어 나는 가끔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도 그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을 시큰둥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그 사랑으로 인해 오히려 오만해진다면 그 사랑은 참으로 슬프고 낭비적인 사랑이다.

사랑하는 일은 막대한 시간과 에너지를 요한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항상 배려하는 마음, 그 사람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궁금한 마음, 너무나 보고 싶은 마음—어떤 행동이나 말을 해도 항상 의식의 언저리에 있는 그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은 대단한 영혼의 에너지를 요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고작 차 한두 대 굴리는 석유나 석탄 같은 눈에 보이는 에너지는 아까워하면서, 막상 이 우주를 움직이는 사랑이라는 에너지는 그저 무심히 흘려버리기 일쑤다.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서양 동화 중에 <벨벳 토끼>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아이가 갖고 있는 장난감 말과 토끼가 나누는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나는 ‘진짜’ 토끼가 되고 싶어. 진짜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잠자는 아이의 머리맡에서 새로 들어온 장난감 토끼가 아이의 오랜 친구인 말 인형에게 물었다.

“진짜는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건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야.”

말 인형이 대답했다.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많이 아파야 해?”

다시 토끼가 물었다.

“때로는 그래. 하지만 진짜는 아픈 걸 두려워하지 않아.”

“진짜가 되는 일은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야? 아니면 태엽 감듯이 조금씩 조금씩 생기는 일이야?”

“그건 아주 오래 걸리는 일이야.”

“그럼 진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아이가 진정 너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놀고, 너를 오래 간직하면, 즉 진정한 사랑을 받으면 너는 진짜가 되지.”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깨어지기 쉽고, 날카로운 모서리를 갖고 있고, 또는 너무 비싸서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장난감은 진짜가 될 수 없어. 진짜가 될 즈음에는 대부분 털이 다 빠져버리고 눈도 없어지고 팔다리가 떨어져 아주 납루해 보이지. 하지만 그건 문제되지 않아. 왜냐하면 진짜는 항상 아름다운 거니까.”

아이의 장난감이 아이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닳고 닳아야 비로소 생김새는 초라하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을 지닌 ‘진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진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 일이다. 잘 깨어지고, 날카로운 모서리를 갖고 있으며, 또 너무 비싸서 장식장 속에 모셔두어야 하는 장난감은 위험하고 거리감을 느끼기 때문에 아이가 사랑하지 않게 되고, ‘진짜’가 될 기회를 잃게 된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사랑받는다는 것은 ‘진짜’가 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이다. 모난 마음은 동그랗게(‘사람’이라는 단어인 받침인 날카로운 끝을 .으로 바꾸면 ‘사랑’이 되듯이), 잘 깨지는 마음은 부드럽게, 너무 ‘비싸서’ 오만한 마음은 겸손하게 누그러뜨릴 때에야 비로소 ‘진짜’가 되는 것이다. —장영희, <<내 생애 단 한번>> 중에서

■ 마/음/으/로/읽/는/글

당신의 의지 안에 가두시고

하나님,

저를 당신의 의지 안에 가두시고,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지혜 안에 가두시며

당신께로 이끄소서.

제가 어떤 일을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단지 저 자신의 만족 때문이라면,

저는 결코 아무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의지와 당신의 사랑을 원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전적으로 당신께 내어 맡깁니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진정 제가 고독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를 그곳으로 이끄시고

그 길에서 저 자신의 모든 의지와 욕망을 깨끗이 없애 주소서.

저는 무조건 당신을 믿습니다.

그 어둠이 어떤 것이든,

저의 두려움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저는 늘 당신 가까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만의 때와 당신만의 방식에 맞게

제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소서.

—토마스 머턴, <<침묵 속의 만남>> 중에서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심방전도사 : 장영숙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성가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운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춘려 김철수 유영남 박창운 허정윤 김정길 최속화 최종원 이봉옥
정완수 김재광 배삼순 김혜권 강인식 김정숙

월정헌금:

윤성종 김윤정 오현정 조항범 김승현 김수진 이소순 황원순 박준희
이기분 황자순 조병주 이갑재 김정섭 이은자 최윤희

감사헌금:

박정오 장민숙 박시내 한완식 임정자 문금석 김종원 이창석 박수경
박병구 강승모 무명1

생일감사헌금: 김인걸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 음 장 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이 인 응	최 희 영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김 영 한	정 경 례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곽 권 희	문 인 옥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문 영 혜	박 경 선
갈 릴 리	조 병 주	박 애 순	조 병 주	진 정 숙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흥 재	임 창 선	김 필 순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박 효 선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속 화	권 미 정	최 희 정	교 회
에 베 소	이 순 정	장 혜 숙	이 순 정	장 혜 숙
빌 립 보	구 성 실	박 현 우	안 길 상	박 현 우
가 버 나 움	구 명 자	안 흥 숙	구 명 자	김 진 경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김 희 우	김 시 영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박 옥 식	김 명 희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배 삼 순	이 증 자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박 혜 경	조 항 미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임원회** : 2부 예배 후 10월 정기임원회가 열립니다.
2. **구호헌금** : 오늘 예배 중에 드리는 헌금은 지진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3. **후원자 모임** : 고난 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중고등부실), 방아골 종합 사회 복지관(청년부실), 샘터마을, 동트는 마을(교육관)을 후원하는 분들의 모임이 오후 1시 20분에 있습니다.
4. **나들이** : 아름다운 원로들이 28일(금) 남이섬으로 가을 나들이를 떠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5. **신앙강좌** :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기념주일입니다. 오후의 기념 강좌는 이화여대의 양명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6. **추수감사주일** : 11월의 첫째 주일인 6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7. **신앙실천** : 인생은 고마움을 알 때 풍성해집니다. 누군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보십시오.

* 식당 봉사 : 나사렛 속

* 헌화 : 이정은 권사 (남편 추모)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